

Arrival

김우영, 이지연, 이해림



일정: 2016.11.10(목) - 2017.1.11(수)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20)

문의: T. 549-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보도자료 및 이미지: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Arrival전 폴더)

갤러리 시몬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세 번째 Arrival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Arrival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도착”이라는 의미에 착안하여, 세 명의 사진작가 김우영, 이지연, 이해림의 작품들을 새롭게 소개한다.

김우영 작가는 원초적인 자연과 자본주의, 산업화의 잔재가 혼재하는 미국의 중소 도시풍경들을 소재로 시대, 사회, 사람에게 의해 소외되고 버려진 장소를 삶과 예술의 터전으로 삼아 사진 매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실험을 한다. 작가는 실재하는 풍경과 시간을 숙련된 감각으로 포착하여 추상 회화와 같은 풍부한 색감과 마티에르를 지닌 화면을 표현, 이를 통해 보다 절제되고 치열한 문제의식의 밀도를 높인 작업들을 보여준다. 김우영작가는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시각디자인과 졸업 후 뉴욕 SVA 학부,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으며, 광고사진과 순수미술의 분야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연 작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확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카메라 프레임 안에 담아내고, 이러한 이질적 순간의 이미지들을 재조합 하여 프레임 밖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공간을 시각화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이용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런던, 서울을 배경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인 moonlight shadow 와 walking on air series 작업을 보여준다. 이지연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 후 영국 골드스미스 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영국의 사치갤러리, 네덜란드의 론 만도스 갤러리, 에스파스 루이비통 등의 전시에 참가하였다.

이혜림 작가는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애니메이션에서 재구성된 이미지들을 디지털 입체효과를 통해 가시화한다.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가상현실의 캐릭터인 TOKI는 진화를 거듭하는 여성 사이보그로, 조작된 성 정체성과 여성성, 욕망의 투사, 통제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주제들을 시사한다. 서울에서 출생한 작가는 1993년에 뉴질랜드로 이주한 후 오클랜드의 일렘 예술학교에서 인터미디어를 전공하고, 53, 54회 베니스 비엔날레 연계행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안미로 파운데이션 등에서 작품들을 전시하며 국제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3인의 작품들로 구성된 Arrival전을 통해 현대미술에서 지향하는 새로운 조형적 조합, 매체적 시도를 보여주고자 한다.